

무주산골영화제 '창' 섹션 상영작 공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상영작 10편 · 심사위원 발표

영화와 함께 여유로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2022. 6.2~.6.)가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의 상영작 10편과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상영작 10편을 공개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무주산골영화제 '창' 섹션은 우리가 사는 대체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한국영화들을 엄선하여 상영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유일한 경쟁부문이다. 그동안 <수련>(김이창), <남매의 여름밤>(윤단비), <김군>(강상우), <작은빛>(조민재), <한여름의 판타지아>(장건재), <죄 많은 소녀>(김의석) 등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리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창' 섹션의 상영작은 총 10편으로, 극영화 8편, 다큐멘터리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독창적인 시선과 놀라운 연출력이 돋보이는 6편의 극장편 데뷔작,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조경호 감독의 <거대한 달>, 김정은 감독의 <경이의 딸>, 이지은 감독의 <비밀의 언덕>, 손민영 감독의 <이너 차일드>, 김현정 감독의 <호르다>가 상영된다. 이 중 손민영 감독의 <이너 차일드>는 월드 프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의 상영작 10편과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리미어로 공개된다. 이 6편의 작품들은 작년과 올해 나온 여러 신작 중에서도 여성, 엄마, 성장, 폭력,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특별한 스타일, 작가적인 시선, 뛰어난 연출력으로 소화해 낸 수작들이다. 또한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평론가상 수상작 <에듀케이션> 김덕중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컨베이션>과 2021년 하반기 최고의 화제작 중 한 편이었던 박승열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개된 한국 다큐멘터리 중 가장 돋보이는 성취를 보여주며, 한국 다큐멘터리의 지평을 확장시킨 2편의 다큐멘터리, 이일하 감독의 <모어>와 오재형 감독의 <피아노 프리즘>이 상영

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10편의 '창' 섹션 상영작 선정 소감에 대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신인 감독들의 등장과 여성영화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변주를 통해 새로운 여성 서사의 가능성을 찾아낸 수작들과 특별한 시선, 개성있는 스타일, 독창적인 형식, 신선한 내러티브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아 영화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며, "이 10편의 영화가 그려내는 동시대 한국영화의 지평도는 한국영화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창' 섹션의 시상 내역은 5개 부문으로 총 2천3백만원이다. 뉴비전상(대상), 나뭇상(감독상), 아빈 크리에이티브상과 함께, 지난해 제한된 관객 수용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관객상이 다시 운영된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김중관 감독(<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아무도 없는 곳), 안은미(바른손/바른손스튜디오 대표), 장영엽(세네2 대표)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화평론가상 심사위원은 박인호, 오진우, 조혜영 평론가이다.

동시대 한국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의 상영작은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영화제 기간 내 만날 수 있으며, 영화제 기간 중 10편의 감독과 배우들이 무주를 방문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삼례 그림책미술관, 두 번째 요정 시리즈 출간

영국 질만 작가 미공개 작품 어린이날 최초 출간 예정

지난해 개관한 완주군의 대표관광지 삼례 그림책미술관(관장 박대현)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두 번째 요정 시리즈를 출간한다. 27일 완주군은 현재 전시 중인 <요정과 마법의 숲>에 이어 두 번째 요정 시리즈 <요정과 마법 지팡이>를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1940년경 영국 그림책 작가 질만(Jill Mann)의 미공개 작품을 그림책미술관에서 발굴, 세계 최초로 한국어판으로 출간하는 책이다.

이야기는 테디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된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보기로 했는데 이 인형들의 뒤를 잡고 움직이면 진짜 사람처럼 말을 한다. 테디는 인형들이 홀로 남겨지면 혼자서도 움직일 거라고 믿고 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 인형극장의 커튼이 움직이고 작은 인형 하나가 조심스럽게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있는 요정의 마법 지팡이를 개구쟁이 골리워드가 훔쳐간 것이다. 때문에 인형극장의 모든 인형들이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 힘을 합쳐 마법 지팡이를 찾아 테디의 파티를 구하는 내용이다.



요정과 마법 지팡이

이 책의 원래 서명은 <살아있는 인형(The Lively Puppets)>으로, 작가 질 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고의 내용과 그림의 질은 매우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색의 인형 삽화들은 어린이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주기에 충분하며,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그림책미술관에서는 오는 9월 6일부터 이 책의 오리지널 원고와 삽화를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및 도서 문의는 그림책미술관(063-291-7821) 또는 완주군 문화마을팀(063-290-2614)으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문화재단 대응방안 모색 · 정책 제안서 발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 정책포럼' 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역)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역)는 2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포럼'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망라하는 지역문화 진흥의 구성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단체는 공식 출범 이후,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대 정부 제안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포럼은 차기 정부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의견수렴과 담론 형성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구축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총 다섯 가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로 나뉘져 있다.

한편 지역문화 정책 제안서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실질적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확산하고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장은영 기자

익산시,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개최

익산 백제 왕궁에서 오는 30일 펼쳐지는 '세계유산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특별한 힐링 시간을 선사한다. 세계유산 백제왕궁과 미륵사지의 소중한 역사적·문화 유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 진행될 예정이며, 1일 차에는 백제 무왕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즐길 수 있는 '왕궁올림픽', 별빛(박등)으로 과거 백제인과 신비로운 교감을 연출하는 '천년별밤의식'이 진행된다.

또한 별빛(박등)을 들고 왕궁리 오층석탑을 돌며 참여자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천년소원 나눔(탑돌이 소원나눔)' 등 다양한 체험을 통

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2일 차에는 백제 왕궁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산책하는 '백제왕궁 새벽 산책', 백제 왕궁에서의 일출을 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는 '백제왕궁 해맞이', 미륵사지를 탐방하며 미륵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고 느끼는 '미륵사지 이야기 산책'으로 진행된다.

특히 '천년소원나눔'은 천년별밤캠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회 참여 가족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기도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 군산 온다

군산예술의전당서 29일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와 군산 첫 내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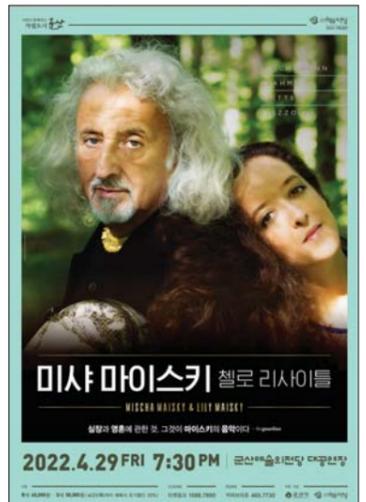
이 시대 첼로의 거장이라 불리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에서 군산 첫 내한 공연 무대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7년 한국공연 이후 5년 만의 무대로 브리튼의 '첼로 소나타'와 피아졸라의 '트 그랑 탱고'가 연주된다. 두 곡은 모두 마이스키의 스승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된 곡이다.

또한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이 연주된다. 두 곡은 바이올린을 위해 작곡된 곡을 첼로 버전으로 편곡돼 연주될 예정이다.

지난 1985년부터 도이치 그라모폰의 전속 아티스트로 35장이 넘는 앨범을 녹음한 마이스키는 2019년 새 앨범 <20세기 클래식>을 발매했다. 메시앙, 피아졸라, 브리튼, 바르톡, 프로코피예프 등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을 담은 이 앨범은 격변의 시기에 작곡된 곡들의 특성과 첼로의 방대한 음역과 폭넓은 음색, 풍부한 연주 기법이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술



의전당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